

벨기에 브뤼셀서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 전시 개최

06 March, 2016 | 문인영 기자

국제갤러리 브뤼셀 보고시안 재단 협력, '과정이 형태가 될 때: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 개최



국제 갤러리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보고시안 재단이 협력해 빌라 영빵에서 열리는 '과정이 형태가 될 때: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 특별전이 지난 달 개최됐다.

작년 5월 국제갤러리는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병행전시의 일환으로 '단색화'전을 개최하여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는 단색화의 거장들의 작품을 국제무대에 소개한 바 있다. 국제 갤러리는 '이번 보고시안재단과의 협력 전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세계주요화단에 단색화에 대한 관심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지난 달 20일에 열려 대표적인 단색화 작가 권영우, 김환기,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의 1970년대 및 80년대 주요작품 50여점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국제갤러리는 '본 전시와 연계되어 프랑스어, 플랑드르어와 영어로 번역된 단색화 연혁, 평론 등이 담긴 서적을 발간해 전세계에 단색화를 소개하는 주요한 참고 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열린다.

URL :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7>